Canton Pl 33

[Speaker 2]

이름을 알려드릴까요?

[Speaker 1]

제 이름은 이선우고요. 한국 이름. 나이는 72살이에요.

사는 곳은 한인파원을 조금 벗어난 다운타운죠.

[Speaker 2]

미국에서 어떻게 왔어요?

[Speaker 1]

미국에 처음 오게 된 것은 아들, 정착은 아들 때문에 했는데 시작은 여행으로 시작이 됐어요. 남편이 60세 생일 여행을 LA에 동생이 살아서 왔다가 서부관광을 하던 중에 남편이 너무너무 미국이 넓고 좋은데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여행자니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한국의 사업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막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말하자면 한국 그 어려운 상황을 자기가 막 헤쳐나가는 게 조금 버거웠는지 미국에 오면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때 나이가 60살인데 그런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여행으로 왔다가 여행 왔으니까 가야지.

가서 조그만 사업을 정리하고 또 여기를 왔어요. 여기를 학생으로 왔어요.

[Speaker 2]

두 번째는.

[Speaker 1]

그러던 중에 우리 아들이 유학을 오고 싶대요. 그때 아들은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군 복무 다 마치고 그러고 대학원 준비하던 중인데 여기다가 자기가 돈을 보냈더라고요. 자기 고모, 나에게는 신혼.

그쪽 편에다가 등록금주로 학교를 정해서 돈을 보냈대.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아들이.

아들이 오니까 우리는 아들 때문에 더 정착을 한 거지. 그 아이의 뒷바라지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신분이 없잖아요.

학생인데. 그때 당시 그걸 알았지. 미국의 학생은 돈을 벌 수 없다.

신분이 없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지금. 미국의 학생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우리는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현재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래서 일을 해야 살 거잖아. 우리가 세 식구잖아. 말하자면.

아들, 엄마, 아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취직을 하게 된 게 이거는 조금 비공식인데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켓을 취직을 했어요.

마켓. 한남체인을. 한남체인을 남편이.

나는 아니고. 나는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고. 나는 유학생의 아내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을 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버는 건 되는 거야.

신분을 따지자. 그러고 남편은 한남체인을 들어갔어요. 한남체인도 신분이 없는 거잖아.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채용할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줄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어요.

남편이 조금. 일을 하다가 신분, 광물을 습권을 해주겠다는 엔지니어를 뽑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남편이 엔지니어 일을 했거든요.

거기다 원서를 놓는데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습권을 해줘서 우리가 영주권자가 된 거예요. 그 회사에서 남편을 쓴 거지.

채용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영주권자가 됐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고절도 있었지만 둘이 열심히 좋은 직업을 갖고 폼나게 살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미국이라는 곳이 다른 사실이지만 마약, 도박 그것만 안 하면 다 일할 수 있는 거야. 다 일할 수 있는 곳이고 내 정신만 건강하면 살아가는 데는 정말 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나는 미국을 너무 좋아해.

지금 내 형편에 시민권을 봐야. 시민권을 봐야. 그건 시험이잖아.

테스트잖아. 영어가 심리적으로 막 부담이 되고 어려워서. 나중에 천천히 시간 있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가려고 미루고 있고.

[Speaker 2]

내 아빠랑 같이. 내 아빠도 한국에서 와서 영어가 좀 안 알아서 다시 다 알아서.

[Speaker 1]

그래도 학생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우리같이 나이 60살 되고 70살 되고. 들어도 잃어버리고. 그전에는 아침 인사 붕어짐도 안 나오더라고 입안에서.

그렇게 굉장히 영어라는 게 남미 나라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이 별로 쉽게 안 나와. 땡큐도 잘 안 나

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감사합니다로 나오지.

한국말로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땡큐 이렇게 하는 게 처먹버리고 그랬어요. 지금 땡큐 정도를 하지.

그렇게 해서 15년 됐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Speaker 2]

할머니는 지금 케이타노에서 살아요. 케이타노에서 1990년대에 엘리베이터를 한 번 봤어요. 엘리베이터를 알아요?

케이타노에서 많이 불고 있고. 1990년대. 엘리베이터를 알아요?

케이타노에서 불고 있고. 숯불이 다 불고 있고.

[Speaker 1]

엘리베이터도 지난 다음에 왔죠? 지난 다음에 왔죠.

[Speaker 2]

아 지난 다음에.

[Speaker 1]

그래서 1990년대까지 지난 다음에 왔지.

[Speaker 2]

네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에서 먼저 왔면, 그 다음에 이제는 사는 거는 어떻게 달라요? 엘레.

[Speaker 1]

엘레에서 사는 걸?

[Speaker 2]

어떻게 달라요? 시간과 이제 가서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 시티.

시티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부터.

[Speaker 1]

처음에 왔을 때 엘레이랑 지금이랑 어떤 게 달라요? 처음에 올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처음에는 한국 가봐서 알지. 한국이 너무너무.

[Speaker 2]

한국 봤지.

[Speaker 1]

그래서 나는 미국에 대한 나름의 상상이, 영화에서 봤던 미국을 생각했을 거 아니야. 미국을 안 와봤으니까. 그런데 엘레에 타고 왔는데, 너무 미국이야 막.

너무 이상한 거야. 특히 여기 한인타운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어머 여기 무슨 미국이래.

[Speaker 2]

처음에 그랬어요.

[Speaker 1]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내가 고향처럼 익숙해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홈리스도 많아졌거든.

그때 나 왔을 때보다.

[Speaker 2]

더 많아졌어.

[Speaker 1]

말도 못해. 그래도 거부감이 필요 없어.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어떤 사회로 저런 생활을 할까. 막 이런 안타까움. 지금은 너무 익숙하고, 좋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느꼈던 엘레이하고, 지금 내가 사는 엘레이하고, 받아들인 거지 내 것을.

[Speaker 2]

한국보다 미국이랑, 한국은 더 좋아? 한국에 있는 거? 아니면 미국 거?

[Speaker 1]

어떤 게 좋은가. 한국은 내 나라니까 다 좋지. 말 통하고, 얼굴 통하고.

[Speaker 2]

한국말도 다 알지.

[Speaker 1]

내 생활 속에 아주 편리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체면이라는 것을, 체면이 뭔지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현재 내 직업, 나는 이거 자랑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부끄럽지 않아요. 건강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Speaker 2]

물어보지.

[Speaker 1]

이거 일한다고 얘기해. 부끄럽지 않아. 나는 IHSS 간병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업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여기에 와서는 누구를, 막 그렇게 체면에 의식하고, 의존에 의해서 부끄러워서 일 못해. 한국 같았으면 안 했을 일이야. 내가 한국에서 잘 살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낳아서 크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체면, 친구들한테 창피하니까, 한국은 파추부라고도 얘기해.

남네 직업을 하는 사람. 가사도 요새 말을 좀 좋게 해가지고. 그런데 한국에서 같은 걸 아마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나한테 부끄럽지 않고, 또 다른 건, 엄마 같은 분, 말하자면, 나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예의를 잘해줘. 무시하지 않아. 아니, 속으로는 무시해도 할 수는 없지만, 나한테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아.

함께 이렇게, 나는 네가 필요해서 돈을 주고 너를 쓰는 거야. 나는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주는 거야. 이런 관계 속에서 유대가 좋아.

한국은 지금 많이 변했겠지만, 한국은 좀 그런 게 있거든. 하대한 업심력. 그런 어려운 말은 잘 못 알아듣지.

[Speaker 2]

도와줘.

[Speaker 1]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

[Speaker 2]

조금 알았는데.

[Speaker 1]

태극관도 있어야 돼. 청소는 내가 할게. 냉장고에 넣을 것만.

우리 하민이. 멋있게.

[Speaker 2]

감사합니다.

[Speaker 1]

잘 자라줘서 고맙고.

[Speaker 2]

이거 해서 고마워요. 아니, 당연히.

[Speaker 1]

뭐 필요하세요? 한국하고 여기하고, 내 생활 속에 다른 게 어떤 게 특이했어요? 현재 직업을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 같으면 파출고, 가사도 일을 하는 건데, 아마 한국 같았으면 못했을 거다. 자존심.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쓰는 고용주.

그게 엄마야. 엄마 같은 분이 나를,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는 데서는 차이가. 한국하고 미국의 차이가 대단해.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신성한. 직업이야.

[Speaker 2]

노동의 대가. 노동의 대가.

[Speaker 1]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서 한국의 친구들도,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아니 한국까지는 말고, 여기서라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직업을 물어봐요. 어머, 아직 일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그럼 나 이 일을 한다고 말해. 부끄럽지 않다고, 흥게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멋을 내지 않고 다녀도 누구를 의식 안 하고.

한국은 막 그런 걸 의식하고 그래요. 처면. 우리도 한국 가면 왠지 이러고 나가면, 그런 게 좀 있어요.

미국이 나는 참 좋은 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내가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그거보다도, 이모의 라이프 스토리.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Speaker 2]

처음에 잡혔어요?

[Speaker 1]

조금, 네. 좀 더 집중해서. 예를 들면, 이모가, 자녀가 어떻게 되시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지금 아들은 미국에 같이 있으시고, 딸은 한국에 있어요. 할머니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있잖아.

할머니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있잖아. 몇 살인 줄 알아?

[Speaker 2]

하나?

[Speaker 1]

4살!

[Speaker 2]

어? 몰랐는데?

[Speaker 1]

그래서 그때 우리 코비드 했을 때, 할머니가 워낙 몇 달 한국 가신다고 했었어. 그래서 그러다가 코비드 생기고, 그래서 할머니도 생각보다, 그런데 왜냐면, 애가 4명이었어.

[Speaker 2]

도와주신 거.

[Speaker 1]

4명째 아이가 죽을 뻔했대. 그래서 특별히 가셨는데, 애가 지금, 헐 컸어. 아, 좋아요?

3명째 아이가 죽었고, 1명째 아이가 의료 문제때문에, 그래서 SOS. 그래서 이모가 도와주러 가셨어. 할머니가.

그리고, 그 얘기도 되게 감동적이야. 그녀는, 조카가 있었어. 조카?

조카, Nephew.

[Speaker 2]

이름이야? 조카.

[Speaker 1]

조카가 Nephew란 뜻이야. 그녀는 Nephew였어. 조카라고.

[Speaker 2]

조카. 웃긴 사람?

[Speaker 1]

아니, 조카 아니고.

[Speaker 2]

조카.

[Speaker 1]

조카가 영어로 뭐? Nephew. 말하자면, 엄마하고 은하.

그런거지. 말하자면, 이모의 남동생이야. 조카의 아들.

조카의 아들. 그 아이를 내가 키웠어. 근데 쟤가 지금, 90년생이니까 33인가, 4시야.

1990년생이야.

[Speaker 2]

그래.

[Speaker 1]

4시인가 봐.

[Speaker 2]

미국에서 같이 왔어.

[Speaker 1]

36이죠. 26년인데.

[Speaker 2]

90년생인데.

[Speaker 1]

어머나. 나이가 그렇게 많아?

[Speaker 2]

같이 안 왔지.

[Speaker 1]

그때 몇 살이었죠? 고등학교. 고1때 내가 걔를 키워왔어.

[Speaker 2]

고등학교.

[Speaker 1]

걔를 데려올 수가 없었어. 왜냐면, 우리 호족의 자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조카를 키웠어?

그녀는 조카를 키웠어. 근데 조카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못 키웠어.

놔두고 왔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언제부터 키웠대? 첫 달 지나고 바로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

[Speaker 2]

아이고. 어떡해.

[Speaker 1]

진짜 아기인데. 진짜 아기지. 두 달 채 안 됐을 때 헤어졌어.

그때는 법적인 이혼을 안 하고 떨어져 살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애가 4살 되면서 친정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 외곽집에서 딸 생존했으니까.

그래서 걔를 여동생네 집에 갖다 놓은 거야. 4살 때. 아기를.

아이고. 근데 우리 동생이 너무너무 걔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시어머니가 싫어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야. 언니밖에 키울 사람이 없어. 그래.

우리 시집식은 착하거든. 그래도 나는 그게 싫었어. 그리고 우리 남동생이 생활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혼할 수 있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그게 싫었어. 그래서 구학원에 보내버려.

이랬어. 처음에는 구학원에 보내자고 했어. 구학원 어딘지 알지?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보기 전에 순간 내 감정대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녀는 그날을 본 적이 없었어. 그녀는 그날을 본 적이 없었어.

그녀의 시어머니가 첫째에 있었어. 그녀는 그곳에서 떨어졌어. 그녀는 그때 할머니와 살고 있었어.

할머니가 그날 할머니가 그날 할머니가 그날 할머니가 그날 잘 쓰고 있어 아이고 어이가 없을 때 아이고 기가 막힐 때 아이고 놀랬을 때 아이고

[Speaker 2]

놀려면 설마 멋있다

[Speaker 1]

그래갖고 사실은 4살부터 이제 와서 왔다갔다 하면서 6살부터 우리 동생네 집에 정착을 했고 6살은 내가 데려오지 못했지만 노다지 모든 학업비 유치원비 내가 다 생활을 시켜주고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가 얘를 너무 거박을 하고 무시하고 학교갈 때 깨우지도 않고 학교를 나는 너무너무 많이 물었는데 아내 선생님이 그래 얘가 아무도 없는 고아지 고아 그런 애인 줄 알고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건사를 한 거야 학교 10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오고 그런데 끝날 때 걔가 가방 주면서 혼자 학교를 오는 거야 1학년 때 그 소리 듣고 내가 너무 슬퍼갖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데려왔어 아기를 1학년 1학기 끝나고 2학기부터 이제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옮겼지 그 담임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제 시간에 학교를 와본 적이 없대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좋은 고모가 계셨네요 이러면서 많이 그렇게 그런데 애기가 너무 잘 자라주고 그때까지는 그러면 내 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걔를 케어한다 내 동생이 가게를 하니까 지금은 잘 살아 그때는 걔도 젊었고 철이 없이 방황하고 그거 얘기하면 슬프지 그냥 애기가 이제 두 달쯤 됐으니까 걸음도 잘 못 걷잖아 신발이 저기 벗겨졌는데도 모르고 막 끌고 다니는 그런데 우리 동생이 정착을 못해갖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면 그렇게 되더라 그는 그냥 어렸을 때 그런데 그게 듣고 그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 고등학교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는 아무튼 거기에 있었어 그녀를 불렀다니까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가기 전에 불렀어 내가 그때 생활이 어렵잖아 돈이 뭐 여유가 있지도 않아 그런 거를 남편 몰래 돈을 보내서 애를 오라고 했어 그래서 애를 여기서 보름 내방 데리고 올지도 못했어 나는 거기 앤디슨의 집에 가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아미에 가잖아 대학도 갔대 지금 선생님이야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오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대 그래서 지금 나한테 너무 잘해 우리 아들보다 더 살가버 엄마라고 그래 내가 고모인데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보다 더 잘해 아미는 알지

[Speaker 2]

잠깐만

[Speaker 1]

농담 그러면 그때 미국 오실 때는 사업이 좀 힘들어서 오셨나요? 그럼 무슨 사업? 우리는 우리는 에르베타에 들어가는 구소 그걸 갖다가 기공 색깎는 일이지 그런 공장을 했었어요 남편이 원래는 사무직인 사람인데 누가 동업자 우리 애들 어릴때 동업자가 생겨가지고 퇴직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괜찮았지 그게 IMF 만나면서 부도 그러던 중에 재산이 줄잖아 원장도 들고 한국도 부동산 재산으로 갖고 있잖아 줄고 줄고 줄고 그곳이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어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이유로 왔지만 도피한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와가지고 간데가 한남체인 거기서 한 1년 이상 있었던 것 같아 거기서 어떤 일 하셨어요?

한남체인에서 생선부로 돌아갔대 대단하시다 해보지 않았던 일을 대단한 사람 저도 이제 제가 화장실? 물 드릴까요? 괜찮아 다 쓰셔요 엄마도?

다? 새로운 사실 저도 50인데도 안해본 일을 하는건 어려운거잖아 되게 용기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 엘리스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유철레 집에 3년 있다가 엘리스네를 갔는데 유철레라고 이름은 그때 유철이는 그때 샘제이씨 한국으로 이민을 그때 당시 가서 엘리스가 전여친 이름이 엘리스인데 엘리스 엘리스 엘리스 엘리스 엘리스 리아 케빈킴 케빈킴 딸 리아 리아 리아 리아 첼로 첼로에요? 첼로 알아요?

[Speaker 2]

너무 커요?

[Speaker 1]

그거 첼로인데요 근데 첼로 아닌거 같아 아 아니었어요? 있을거야 아빠는 케빈킴 엄마는 미셸킴어? 잠깐 저기 디렉터리에서 한번 봐도 된대 여기여기여기여기 화보에서 다니고 리키도 거기 다닌다 리아 동생 리키도 거기 리키요?

리키라나 우리는 그렇게 불렀으니까 아무튼 리아 걔도 오케스트라 하고 악몽을 썼다고 딸의 그집의 딸의 딸 아들의 딸 아들이 케빈이야 그냥 궁금해서 아는 사람이라니까 맞아맞아 화면이도 거기 다 닌데 그렇게 되있더라고 케빈 k-e-v-i-n 이에요? 아니면 켈빈이예요? k-e-v-i-n 9학년 11학년 닌콜킴 아니야 닌콜앤지 반복 네?

[Speaker 2]

하빈아 너 이제 밥 먹으러 가 어?

[Speaker 1]

밥 먹으러 가야돼 내가 이제 오케이